

대구 매일신문 이웃사랑보도 최장기 인정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연재·누적 성금액 신기록

매일신문 불우이웃돕기 연재 코너인 '이웃사랑'이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한국 신문사 최장 불우이웃돕기 연재 및 최고 누적 성금액 모금' 신기록 달성을 인증 받았다.

KRI 한국기록원은 대한민국 최고기록을 공식 인증하고, 이 중 우수기록은 WORLD RECORD COMMITTEE (WRC·세계기록위원회) 외에 국제적으로 저명하고 인지도 있는 해외 인증업체에 인증심의를 요청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기록원 기록증서서비스팀은 '이웃사랑'을 '불우 이웃 돕기 신문 최장기간 연재 및 최고 성금모금액' 분야의 새로운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했다.

한국기록원에 따르면 매일신문사는 2002년 11월 19일부터 인증 시점인 2019년 10월 8일 현재까지 16년 11개월 간 매주 한 회씩 모두 853회의 연재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이웃들을 찾아 취재·보도한 후 독자가 기부한 성금 11억5373만5384원을 804명에게 전했다.

매일신문 '이웃사랑'은 매주 한 차례 보도되는 불우이웃돕기 기획기사다. 지난 2002년 11월 19일 '아름다운 함께 살기'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뒤 2005년부터 '이웃사랑'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인도에 한국 사찰 지어달라” 50억 기부

설매·연취 두 보살 조계종에 개인 사상 최고액



연취 보살(왼쪽)과 설매 보살

깊은 불심(佛心)으로 37년간을 도반(道伴)으로 지내온 두 여성이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짓는 데 써달라며 대한불교조계종에 50억원을 기부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이 종단에 낸 기부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꼽힌다.

설매(73) 보살과 연취(67) 보살 두 여성 불자는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에서 50억원을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자신들의 실명 대신 설매와 연취라는 법명(法名)만을 소개한 두 불자는 기부 전달식에 앞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잠시 돈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빈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며 “그것을 어디다 남겨둔다기보다 (돈은) 삶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액의 기부 배경을 밝혔다.

설매 보살은 “그래서 한국 불교가 거듭나고, 2600년 전에 부처가 성도(成道)하신 곳으로 되돌아가는 불심을 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기부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보살은 내년 2월말까지 현금으로 50억원 기부를 완료하게 된다. 조계종은 향후 종단 불사위원회를 열어 기부금 활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명지휘자 마리스 안손스 타계



세계적인 명지휘자 마리스 안손스가 타계했다. 향년 76세.

1일 발트3국 뉴스통신 BNS와 AFP통신, 바이에른방송 교향악단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안손스는 전날(현지시간) 샤프테데르부르크 자택에서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AFP는 유족의 지인들을 인용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20세기 위대한 지휘자 에프티 메리안스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에게 배운 그는 현대 지휘계에서 이들을 잇는 '명장'의 명장으로 손꼽힌다. 그는 러시아 음악에 정통했으며 특히 쇼스타코비치 스펙트럴리스트로 통했다.

1943년 라트비아 리가에서 지휘자 아버지인 아르비드 안손스와 소프라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956년에 레닌그라드 콘서바토리에 입학, 지휘와 피아노를 익혔으며 1969년에는 카라얀에게 지휘를 배웠다.

1971년에는 카라얀 지휘자 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했다. 1973년에는 아버지를 이어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지휘자가 돼 20세기 전설적인 지휘자 메리안스키로부터 직접 지휘를 배우기도 했다. 쇼스타코비치 친구이기도 한 메리안스키를 사사한 그는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탁월한 해석으로 여러 명반을 남겼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문성광·이하정씨 장남 장주근, 오주승(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전 광주일보 논설위원)·박신자(광주 남구청 주월2동장) 씨 장녀 지수양=7일(토) 오후 1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2층 CN홀.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회장 이동재)=10일(화) 오후 6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17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3층 062-225-5636.

일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사)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광주광역시노년회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서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모집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이석주씨 별세, 이지연(자영업)씨 부친상, 조영일(광주 C.C)씨 부부상, 신영덕씨 배우자상=발인 4일(수) 오전 9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인권도시 광주서 외국인 119 소외 없어야죠”

10년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통역 자원봉사 최수명 씨

2008년 신설된 봉사단체

14개 국어 57명 도우미 활동

밤·새벽에 호출돼 항상 긴장

생명 구하는 일 큰 보람

봉사 통해 더 큰 행복 얻어

긴급 상황엔 119. 우리는 전화 한 통이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그 한 통의 신고 전화조차 어렵다.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혀 상황 전달이 안 되기 때문. 최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이 문제는 더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에 있는 긴급 상황에 놓인 외국인을 위한 소통 창구가 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운영하는 '외국어 119 통역 도우미'가 바로 그것. 2008년 신설된 자원봉사단체로, 현재 중국,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독일, 러시아 등 14개국어 57명의 통역 도우미가 119 신고 전화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어 통역을 맡은 최수명(38)씨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여 동안 통역 도우미 생활을 이어왔다.

중국에서 나고 자라 21살 때 한국으로 온 최씨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사로 활동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부 갈등으로 가정법원에 출원하던 그는 점차 광주 지방법원, 검찰청, 기업 등 전문 통역사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갔다.

“통역 일을 하다 보니 시에서 119 통역 도우미를 맡아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마침 외국인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여서 일을 맡았습시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말이 안 통해 답답하고 힘든데, 광주에 있는 외국인에게 통역을 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요.”

“119 통역 도우미”는 일반적인 통역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생명이 위독한 긴급 상황을 맡게 된다는 점, 언제 긴급 상황이 생길지 몰라 늘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이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광주를 찾아왔을 때, 새벽 4시에 중국인 투숙객 여성 두 분이 새벽에 누군가 계속 문을 두드리라며 신고했어요. 경찰 신고 번호가 중국은 110으로 우리나라와 달라서 119로 연락했던 거예요. 이렇듯 경찰, 소방 업무에 상관없이 통역 요청을 받는데, 주로 밤과 새벽 시간에 일이 생겨요. 그래서 도우미들은 긴급 상황을 염두에 두고 늘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급히 전화를 받고 통역하는 것은 고된 일이다.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금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57명의 도우미들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어떤 일에서도 느낄 수 없는 보람 때문이다.

“한번은 협심증을 앓던 중국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통역을 도와 응급 처치를 하고 안전하게 병원에 이송했는데,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자기 재능과 능력을 통해 도와준 이들로부터 큰 감사를 받았으니, 사실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은 셈이죠.”

최씨에 따르면 아직 많은 외국인이 119 신고 전화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광주·전남은 여행객보다 노동자가 더 많은데, 이들의 경우 119 번호를 알면서도 신고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다리 뼈가 부러진 듯 아파 119에 신고한 한 외국인 노동자는 다리보다 수술하고 겁스한 뒤 나를 돈을 더 걱정하더라고요.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추방당할까 두려워 선뜻 신고를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권과 생명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니까. 119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



가 잘 발전해 광주 지역 모든 외국인이 생명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지금까지 긴급한 상황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암 면역 치료 메카 ‘성큼’

독일 프라운호퍼IZI와 심포지엄...양국 연구팀 결과 발표

화순전남대병원-독일 프라운호퍼IZI(세포치료 및 면역학) 공동연구소가 암 면역세포치료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와 화순군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차세대 백신’이라 불리는 면역세포 치료 분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공동연구소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 대회의실에서 양국 의료·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한-독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사진>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마티엘 사데닝스 박사 등 3명의 석학이 참석했으며, 화

순전남대병원에선 신명근·민정준·이재중·박인규·양덕환 교수 등 5명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포치료제와 분자 진단, 분자 이미징과 전달 등 두 개의 세션에 관한 최신 학술·응용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연구팀은 살모넬라균을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해 암세포를 표적하고 이미징화해 암조직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암 부위로 약물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멸시킬 수 있는 나노조립기술, 신규 백혈병 진단 바이오마



커에 관한 기술 등을 소개했다. 두 연구소는 거의 매년 한국과 독일을 번갈아가며 상호 축적된 연구결과를 발표·공유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정신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아시아권에 선 유일한 프라운호퍼IZI 화순 분원 유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화순이 세포면역치료제 개발과 생산거점으로 본격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아·태지역 최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대한적십자사-전남경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오른쪽)가 지난 29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과 ‘범죄피해자 지원 및 나눔’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남현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3개 분야 8개 협력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협약분야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 ▲국민 안

전을 위한 상호협업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4대 취약계층 외에도 범죄피해자, 순직경찰관 유가족 등에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을 지원한다. 전남경지방경찰청은 경찰관 봉사활동 장려, 헌혈, 범죄피해자 지원과 기부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이밖에 적십자사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지식을 제공하고, 전남지방경찰청은 청소년적십자(RCY) 단원에게 청소년경찰학교 체험을 제공하는 등 협력이 이뤄진다.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



장은 “협약을 계기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 소외된 분들에게 웃음을 주는 활동들이 더욱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